

# 배기가스 색깔로 자동차 컨디션을 알 수 있다



차량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에 큰 이상 증상이 느껴지지 않으면 자동차 점검을 소홀히 한다. 그런데 자동차 배기가스 색깔로 차량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content.v.kakao.com/3025)가 배기가스 색깔을 통해 차량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 ■ 정상적인 배기가스 색깔은

정상 차량의 배기가스는 무색이다. 색이 없는 것이다. 간혹 겨울처럼 기온이 추운 날 시동을 걸면 하얀 연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엔진과 냉각수의 온도가 낮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여 배기가스 색깔은 시동을 건 직후보다는 운행 중 혹은 운행이 모두 마친 후 시동을 꺼고 잠시 내려 점검하는 것이 좋다.



### ■ 흰색/회색이라면

배기가스가 뿌옇게 하얀색으로 나온다면 엔진 실린더가 마모되거나 훼손되어 엔진오일이 연소실 안쪽으로 잘못 유입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엔진 코팅제와 같은 제품 사용만으로도 완화가 가능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완화되지 않는 경우엔 반드시 연소실 안쪽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주행 중 하얀 배기가스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냉각수가 연소실로 유입, 연소되고 있을 수 있고 이 때 냉각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동반될 수 있어 바로 정비하는 것이 좋다.

회색 배기가스 역시 엔진오일이 실린더 내부로 흘러

들어갈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엔진오일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주입되어 엔진오일 실린더로 배기가스가 유입되고 연료와 함께 배기가스가 연소되면서 회색 배기가스가 방출될 수 있다. 이 경우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검은색/푸른색이라면

검은색 배기가스는 엔진 내 불완전 연소 시 나타나는 대표 증상으로 오래된 경유차에서 종종 발견된다. 특히 시동을 걸 때 쉽게 볼 수 있고 주행 중 엔진 떨림, 연비 저하 등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휘발유 차량에서 검은색 배기가스가 배출된다면 인젝터 펌프 불량, 연료 분사 노즐 불량, 에어리너 불량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검은색 배기가스가 나온다면 즉시 점검을 통해 원인을 찾고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



묘한 색을 띠는 푸른빛 배기가스는 그 정도나 농도에 따라 원인이 다를 수 있다

푸른빛을 띤 하얀 배기가스가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 흡배기 밸브의 고무 마모로 인해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부로 침투되어 함께 연소되는 것일 수 있다. 푸른빛의 회색 배기가스는 검은색 연기와 마찬가지로 불완전 연소가 원인일 확률이 높고, 일시적으로 매우 옅은 푸른빛 배기가스가 발생된다면 무색 배기가스와 마찬가지로 정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자동차는 배기가스의 색깔을 통해 컨디션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더불어 가끔씩 관심을 가지고 배기가스의 색깔을 점검해 주면 자동차 관리와 안전한 차량 운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

사진=shutterstock



#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 Tel. (323) 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